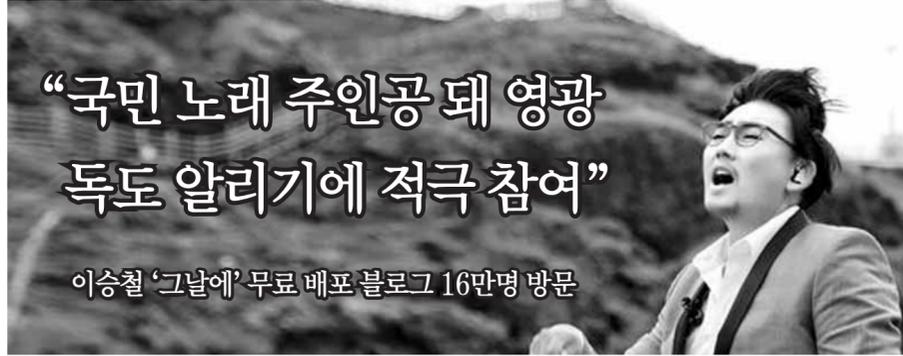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홍풍의 여자)	00 KBC 모닝와이드 55 닥터36부
8	00 아침경제 끝없는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민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재)	40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재)	10 좋은 아침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시청자 갈림 우리사는세상	0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00 SBS 뉴스 30 SBS 경제뉴스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터 백)(재)	10 KBC 생활뉴스 30 영상기행 한국의 명소(재)
1	40 뉴스 특급	00 우리말 겨우기(재) 55 KBS 파노라마 플러스(재)	00 위기탈출 넘버원	00 SBS12뉴스 45 닥터365 55 건강클리닉
2	50 직언직설	05 시사기획 창(재)	00 KBS 뉴스타임 10 역사저널 그날(재)	00 토코콘서트 화통
3		00 KBS 뉴스 10 스키야트(재)	00 키오카(재) 30 자동차 공부방 왕키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4	00 정응관의 시사병법	00 시사지단 55 토티 생활체조(재)	00 TV 유치원 콩다콩 30 마법 천자문	00 베이클루즈 30 우리기 탐구생활
5	00 하중대의 레드년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기차 추추 20 인간극장 스페셜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 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8	20 관촬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 55 TV동화 빨간자전거 스페셜	50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00 드라마스페셜 (피노키오)
11	0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뉴스라인 40 KBS 특선 (근중, 미래의 인류를 살린다)	10 가족의 품격 플하우스	15 예코빌리지 즐거운 家
12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①:50 신대동여지도(재)	30 네트워킹 기획 문화산책 ①:10 생활의 발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①:35 한국인의 밥상(재)	35 MBC 뉴스 24 ①:05 함께사는 세상 희망 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국민 노래 주인공 돼 영광 독도 알리기에 적극 참여”

이승철 ‘그날에’ 무료 배포 블로그 16만명 방문

“통쾌한 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재추진되고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 다시 인식하게 된 점이죠.”
최근 일본에서 입국이 거부돼 화제의 중심에 선 이승철은 “내가 불이익을 당한 일”이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생겨난 게 부듯하고 의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일본 출입국사무소에서 4시간가량 억류된 뒤 입국이 불허됐다.
그는 그 이유로 “지난 8월14일 독도에서 남북청년합창단 ‘위드 유’와 함께 통일송 ‘그날에’를 발표한 데 따른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24일 종로구 삼청동에서 인터뷰한 그는 “당시 시기적으로 국민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와 관련해 민감했다”며 “그런 타이밍에 이 문제가 불거져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일본 활동하는 많은 친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쉬쉬’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날 일본 출입국사무소에서 겪은 일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 포부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일본 입국카드 직업란에 가수가 아닌 CEO로 썼는데 ‘유명 가수 아니냐’고 물더군요. 처음에는 ‘언론에 난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더니 출입국 사무실로 데려가서부터는 그 얘길 빼고 20여년 전 대마초 사건을 언급했어요. 이때 독도 때문이란 걸 직감했죠. 전 일본이 ‘블랙리스트’까진 아니더라도 독도 관련 일을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나 파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국내 온라인에서는 일본을 향한 성토와 그를 응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가 일본 입국 불허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그날에’를 무료 공개하고자 지난 12일 개설한 블로그 방문자수는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겼고 25일 현재 16만명에 육박했다. 카카오톡에도 이 곡을 무료 배포하자 댓글 5만개가 달렸다.
그는 “‘그날에’에 대한 반향이 뜨거운데 국민적인 노래의 주인공이 된 건 영광이자 책임감이 부여된 것”이라며 “조용필 선배도 ‘돌아와요 부산항에’ 보다 민족의 한을 대변한 ‘한오백년’으로 오늘날의 조용필이 됐다. 나도 ‘그날에’를 통해 어떤 위치

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가수가 된 것 같다. 그간 아프리카에 기부도 했지만 가수로서 새로운 길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훈이 형도 만나고 독도를 알리기 위한 연구도 하고 여러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청년합창단과 ‘그날에’를 함께 부른 걸 계기로 ‘원 네이션’(One Nation : 하나의 국가)이란 뜻의 통일 염원을 담은 ‘온(ON) 캠페인’을 전개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매신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그날에’를 언젠가 북한의 모란봉악단을 지휘하며 함께 부르고 싶은 꿈이 있다”고 웃어보였다. 나아가 ‘그날에’가 통일송에 그치지 않도록 이 곡을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 같은 세계 평화를 위한 곡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앞서 이 곡을 미국 유엔본부와 하버드대학교에서도 노래한 그는 유튜브(U2)의 보노에게 콜라베이션(협업)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내놓은 등 여러 외국 가수와의 듀엣 버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에도 싸이,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류현진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으니 이들과 함께 모여 ‘한국판 위 아 더 월드’를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음 달 3일 홍콩에서 열리는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MAMA)에서도 홍콩 어린이 합창단과 ‘그날에’를 부른다.
그간 방송을 통해 김천교도소 수감자, 대학교 학생들과도 합창단을 꾸렸던 그는 “노래가 사람을 교화할 수 있고 희망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했다”며 이번 남북청년합창단과의 모든 과정은 내년 1월 7~8일 광복 70주년 다큐멘터리 특집으로 KBS에서 방송된다고 덧붙였다.
대중의 응원에 부응하고자 그는 자신의 음악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간다. 지난달부터 전국투어 ‘울트라 캡 송’(Ultracap song)을 시작했는데 엔딩곡으로 ‘그날에’를 선곡했다.
내년에는 ‘하나 된 그날을 꿈꾸며’란 부제를 붙여 데뷔 30주년 기념 투어를 진행하는데 내년 6월 미국 뉴욕 매디슨스퀘어 가든을 비롯해 워싱턴,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베이징, 톈진, 칭다오, 상하이 등 해외 무대도 포함한다. 그는 “월드투어 안에 일본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45 미연미아로봇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15:00 꼬마 철학자 유고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5 어린왕자	19:50 다문화 고부열전
07:00 시계마을 타기톡(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정글북	20:40 다큐 오늘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50 모피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07:30 책과 팡(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가을낭만기행, 스코틀랜드>
07:45 로보카 폴리(재)	12:10 EBS 초대석	16:20 버블버블 마린	21:30 한국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2:30 지식채널e	16:35 원더볼즈	21:50 EBS 다큐 프리덤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3:10 부모광장(재)	16:45 Why-최고다! 호기심딱지(재)	<가족소속>
08:35 방귀대장 풍뎡이	13:40 내 이름은 펄기	17:00 방귀대장 풍뎡이(재)	22:45 극한직업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13:50 뛰뛰빵빵 울리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시계마을 타기톡	17:30 로보카 폴리	<환산기행>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4:15 치료와 친구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24:05 지식채널e(재)
09:35 따개비 루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	24:10 한국영화특선 <사랑>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	11:40 박봉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01:50 <국어 II>	12:1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01:40 <영어독해의 기본 II>	13:00 <영어-듣기>
02:30 <수학 I>	14:0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I>(재)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영어독해의 기본 II>(재)
04:10 <과학>	14:50 <수학 II>
05:00 <한국사(하)>(재)	15:40 뉴 탐스런 <한국지리>
05:50 2013 포스 <수학 II>	16:30 <과학>
06:40 암흑탐스런 <생명과학 I>	17:20 <한국사(하)>
07:30 2014 포스 <문학 II>	18:10 포스 <수학 II>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I>(재)	19:00 암흑탐스런 <생명과학 I>
09:10 <수학 II>(재)	19:50 포스 <문학 II>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0:50 박봉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1: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22:00 <영어-듣기>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5:50 "	<사회4-2>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 I (6-2)	16:20 "	<사회5-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	<사회6-2>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명 평가문제풀이	
09:10 TV 중학 <국어 I(2)>	<전과목 6-2>	
09:50 <수학 I(하)>	18:00 TV 중학 <영어3-2>	
10:30 <도덕 I>	18:40 "	<수학3-2>
11:00 <국어 I(3)>	19:20 과학탐정단 시드	
11:50 <수학2(하)>	19:40 사이틴-백민아의 지구뉴스	
12:30 중·간·기말시험대비 문제풀이	20:00 EBS 인문학특강	
<사회1-2>	20:50 EBS 기획시리즈	
<과학1-2>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10 "	22:00 등산시공 <역사(하)2>	
13:50 <과학2-2>	22:40 한국사능력검정시험(중급)	
14:30 "	23:20 중학e포스 영문법3	
15:20 만점명 <사회3-2>		



을 겨울 무슨 영화 볼까?

‘엑소더스’ ‘국제시장’ 등 국내외 대작들 잇단 개봉



국내와 해외 대작영화들이 한 해 최대의 성수기 중 하나인 연말 극장가를 노리고 개봉을 준비 중이다.
‘엑소더스 : 신들과 왕들’이 다음 달 3일 개봉하며 스타트를 끊는다. 형제처럼 자랐지만 민족의 명운을 두고 적이 돼 버린 모세와 람세스의 이야기를 그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다. ‘신들러 리스트’(1993)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스티븐 자일리언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글래디에이터’(2000) 등을 통해 SF뿐 아니라 역사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메가폰을 들었다.
고대 이집트를 재현한 대규모 세트와 흥해의 거적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은 밌고 보는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 모세 역을 맡아 관심을 끈다. 람세스 역의 조엘 에저튼을 비롯해 시고니 위버, 벤 킹슬리 등 연기파 배우도 등장했다. 거대한 규모의 전투장면과 짜임새 있는 플롯을 바탕으로 ‘인터스텔라’의 뒤를 이어 외화 흥행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사다.
다음 달 17일 개봉하는 ‘국제시장’은 윤제균 감독이 ‘해운대’(2009) 이후 5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한 가정에 들이닥친 여러 사건을 통해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의 현대사를 조명한 휴먼드라마다.
영화는 한국 전쟁 당시 남하해 부산 국제시장에 터를 잡은 덕수(황정민)라는 인물의 고단한 삶을 통해 한국전쟁, 독일 공방구려, 베트남 전쟁, 이산가족상봉 등 굵직한 현대사의 궤적을 따라간다. 스케일 큰 전쟁 장면과 해외 로케이션이 많아 100억원이 훌쩍 넘는 순제작비가 들었다. 황정민을 비롯해 김윤진, 장정남, 오달수 등 연기파 배우가 총출동했다.
호빗 시리즈의 최종회 ‘호빗 : 다섯 군대 전투’도 다음 달 17일 개봉할 ‘국제시장’과 정면 대결을 펼친다. 호빗 시리즈

는 ‘호빗 : 뜻밖의 여정’(10억1700만달러)과 ‘호빗 : 스마우그의 폐허’(9억5836만달러)로 약 20억 달러에 이르는 흥행수입을 기록한 글로벌 히트작이지만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다. ‘뜻밖의 여정’이 281만명, ‘스마우그의 폐허’가 228만 명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다섯 군대 전투’는 시리즈의 이야기를 완결하는데다 전투 장면 등 볼거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1편의 흥행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시선을 모은다.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 ‘슈 속으로’는 다음 달 24일 개봉, 뮤지컬 영화 흥행 기록(591만명)을 보유한 ‘레미제라블’(2012)의 아성에 도전한다. 마녀의 저주를 풀려는 베이커 부부와 그림형제 동화 속 등장인물들이 숲 속에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디즈니가 만드는 최초의 뮤지컬 영화로, ‘시카고’(2002)의 릭 마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뮤지컬 ‘위키드’의 제작진이 스태프로 참여했다. 메릴 스트리프, 조니 뎀, 에밀리 브란트 등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들이 주연으로 출연했다.
한석규·고수 주연의 ‘상의원’도 크리스마스를 앞둔 다음 달 23~24일 개봉할 예정이다. 조선시대 왕의 의복과 재화를 관장하는 왕실기관인 상의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아름다운 옷 때문에 벌어지는 사랑과 질투, 욕망을 담은 이 영화에서 한석규는 법도를 중시하는 어진장동서 역을, 고수는 타고난 손재주와 감각을 지닌 천재 공진 역을 맡았다.
이 밖에도 윤상현·송세백이 주연한 독특한 코미디 ‘덕수리 5형제’(12월4일 개봉), 지난해 ‘어바웃 타임’으로 흥행에 성공했던 영국 제작사 워킹타이틀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도 대작들 틈에서 뜻밖의 흥행을 노린다. /연향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6일(음 10월 5일 辛丑)

子	36년생 지나치다 보면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48년생 잘 살펴보는 것이 낫다. 60년생 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72년생 미루어 집착할 수 있으리라. 84년생 현실성 있는 설계 속에 희망이 싹트리라. 행운의 숫자 : 77, 37
丑	37년생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떠 있는 형상이다. 49년생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61년생 일목요연한 체계의 수립이 시행 되어야겠다. 73년생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85년생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81
寅	38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촉매제가 되어 줄 것이다. 50년생 경험이야말로 국면을 타개하는 최상의 기준점이다. 62년생 진술했을 때 설득력이 있다. 74년생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53, 05
卯	39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느니라. 51년생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됨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 옳다. 63년생 상호간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는 것이 순조롭다. 75년생 꼭 지켜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5, 54
辰	40년생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리라. 52년생 다소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4년생 하나하나 자세히 되짚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76년생 일관된 소신을 바탕으로 하는 언행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1, 71
巳	41년생 멀리서부터 상스러운 기운이 비취고 있다. 53년생 여가자에게 복잡하게 얽혀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65년생 곧 시원스런 진척을 보이겠다. 77년생 농치면 후회하게 될 소중한 기회가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9, 19

午	42년생 마무리까지 확실해야 비로소 취하게 된다. 54년생 숨은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6년생 기한을 도과한다면 큰 일 나게 될 것이다. 78년생 무리한 판단을 자제하고 순리에 따르는 것이 해법이다. 행운의 숫자 : 20, 24
未	43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 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55년생 모양새만 보아도 충분히 가닥을 잡을 수 있다. 67년생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79년생 단 번에 끝내려한다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3, 41
申	44년생 상호 공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56년생 의미 있는 일을 접하는 영기함이 보인다. 68년생 가장 실질적인 면에 매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80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일취월장하리라. 행운의 숫자 : 25, 68
酉	45년생 지금 즉시 바로 잡아두어야 뒤따라 없으리라. 57년생 따르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69년생 주변의 생활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81년생 주저하지 말고 실행해야 해갈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4, 35
戌	46년생 시작이 반이니 우선 착수해 두고 볼 일이다. 58년생 길사가 모아져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70년생 여건이 조성되면서 전 체계적으로 기여하는 판국이 이른다. 82년생 차원파일 미루다가는 손해를 본다. 행운의 숫자 : 36, 51
亥	47년생 큰 행보로써 수용하는 것이 맞다. 59년생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니 재반사에 신중하고 삼가자. 71년생 완성을 높여야만 할 때이니라. 83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계속 지면만 되는 동세이다. 행운의 숫자 : 82, 1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